

큰스님 수행한담

“중생이나 부처이나”

종화스님 (태고종 승정)



- 1921년 경북 안동군 생
- 35년 고운사 입산
- 41년 고운사 유선스님을 은사로 출가
- 45년 고운사 대교과 수료
- 47~52년 법어사 통도사 은혜사 선방 수행
- 54~82년 통도사 서약사 법화사 옥천사 주지 역임, 태고종 중회 의장, 중무원장 역임
- 현재 태고종 승정, 강릉 옥천사 주석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18

我今若自生退屈 或生懈怠
아금약자생퇴굴 혹생해태
而恒常望後 須臾失命 退墮惡趣
이항상망후 수유실명 퇴타악취
受諸苦痛之時 雖欲願明一句佛法
수제고통지시 수욕원문일구불법
信解受持 欲免辛酸 豈可復得乎
신해수지 욕면신산 기가부득호
及到臨危 悔無所益 願諸修道人
급도임위 회무소익 원제수도지인
莫生放逸 莫著貪淫 如救頭然
막생방일 막착탐음 여구두연
不忘照顧 無常迅速 身如朝露
불망조고 무상신속 신여조로
命若西光 今日雖存 明亦難保
명약서광 금일수존 명역난보
切須在意 切須在意
절수재의 절수재의

개득충만 우교화이소세계체중생
승득사과 기공덕 무량무邊
영득사과 기공덕 무량무邊
不如一食頃 正思此法 所獲
불여일식경 정사차법 소획
功德 是知我此法門 最尊最貴
공덕 시지아차법문 최존최귀
於諸功德 比況不及
어제공덕 비항불급

또 세상의 유위(有爲)의 선을 따라
도 삼악도의 고통을 면하고, 천상과
인간에서 뛰어난 과보를 얻어 온갖 즐
거움을 누리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는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말할 수 없
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찬 칠보로써 세
상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
생을 교화하여 사과(四果)를 얻게 한
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는 것이
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동안
만이라도 이 법을 바로 생각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내가 지금 만일 스스로 물러날 마음
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
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알고, 받들어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말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살피라

다시 얻을 수 있었는가. 위태로운데
이르러서는 후회할 소용이 없다. 원
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
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
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
월은 신속하여 봄은 아침 이슬과 같
고, 목숨은 석양과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았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려우
니,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
음에 새겨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
고 귀하여 모든 공덕에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故云經 一念淨心是道場
고운경 일념정심시도량
勝造恒沙七寶塔 寶塔畢竟碎爲塵
승조항사칠보탑 보탑필경쇄위진
一念淨心成正覺 願諸修道人
일념정심성정각 원제수도지인
願諸修道人 切須在意
원미차어 절수재의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차신불향금생도 경대하생도차신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갠지스
강의 모래 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
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였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
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
도할 것인가.

김원각 (시인·역경위원)

且憑世間有爲之善 亦可免三途苦輪
차빙세간유위지선 역가면삼도고륜
於天上人間 得殊勝果報 受諸快樂
어천상인간 득수승과보 수제쾌락
況此最上乘甚深法門
황차최상승심심법문
暫時生信 所成功德 不可以此喻
잠시생신 소성공덕 불가이비유
說其少分 如經云
설기소분 여경운
若人以三千大千世界七寶
약인이삼천대천세계칠보
布施供養彌所世界眾生
보시공양이소세계중생
皆得充滿 又教化爾所世界一切眾生

이 책이 서울대 선정도서

나관중의 '원본 삼국지'

원작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삼국지! 범우비평판세계문학 41-0 '99 신개정판

원본 三國志

나관중/중국문학가 황병국 옮김

원작의 광대함과 박진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은 편역하거나 운문한 삼국지가 아니라 중국 삼민서국과 문인서국관을 대본으로 하여 원전에 가장 충실하게 옮긴 원본 삼국지입니다. 한시(漢詩) 원문, 주요전도(戰圖), 출사표(出師表) 등 각종 부록을 대거 수록한 99년 신개정판.

- 작품 해설: 장기근(서울대 명예교수, 한문학 박사)
- 전5권/각 500쪽 내외 · 크라운본형판/각권 값 9,000원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주소 http://www.bumwoosa.co.kr

(무소유) 발간 25주년 기념 개정판

25년 전 (무소유) 초판본(16 4 15쪽 서양판)을 보내주신 분께는 개정판양자본을 보내드립니다

무소유

법정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 김수환 후기경

교보·영풍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간지스 강가의 모래알 數의 갠지스 강물에 가득찬 모래알만큼의 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이름을 빌어 살피되는 무소유지혜. - 도윤 김용옥

무소유는 공동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무 한 그루 배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었다. - 윤구병 변신공동체 대표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7-2121 팩스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익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영 박물관 신화 시리즈 출간

- 아즈텍과 마야 신화**
칼 토메 / 이응근·전경호 공역
신국판 / 180면 값 7,000원
- 이집트 신화**
조지 히트 / 이응근·전경호 공역
신국판 / 186면 값 7,000원
- 메소포타미아 신화**
켄리메트 맥컬 / 임 용 옮김
신국판 / 184면 값 7,000원
- 로마 신화**
제인 F. 가드너 / 이경희 옮김
신국판 / 186면 값 7,000원
* 전국 주요서점 판매중
- 그리스 신화**
루실라 번 / 이경희 옮김
* 근간 예정임

TEL 717-2121 FAX 717-0429
인터넷 www.bumwoosa.co.kr